



코스피 2283.20 (-5.46)	코스닥 820.23 (+4.07)
금리 (연고채 3년) 1.92 (+0.01)	환율 (원-달러) 1125.30 (-3.10) (11일)



[뉴스]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부동산 넘비 심화
02



추석을 맞아 우체국택배 서울 광진 물류터미널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컨베이어마다 택배 산더미 24시간 꼬리문 入-出차량 '택배전쟁, 승전보는 고객에'

르포 추석 택배와의 전쟁

#물류터미널 1층에 들어온 차들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택배 상자들을 쏟아내놓는다. 택배상자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터미널 곳곳으로 빠르게 움직이자 수백명이 상자들을 분류하고 포대에 담기를 반복한다. 상자마다 라벨이 붙어 있어 가야할 곳을 찾아 자동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마감시간이 가까워 오면 더 그렇다. 상자를 분류하는 작업자들은 화장실 갈 틈도 없다. 추석이나 설 명절 때면 선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상자 크기는 더욱 다양해진다. 포대나 대형 플라스틱 박스에 분류한 택배는 다시 아래층으로 이동해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택배 차량을 기다린다. 차가 들어오고 나가기를 무한반복하면서 물류터미널은 명절이면 24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 아르바이트 외에 본사 직원들까지 동원해 전국에서 밀려오는 명절 택배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다. 택배를 사무실이나 가정에 최종 배달하는 택배기사들도 물량이 폭증하면서 일명 '배송알바'까지 고용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같은 집배점에 소속된 택배기사들끼리 물량을 나눠주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띈다.

추석연휴 열흘 여 남아 택배업계 비상체제 가동 본사 직원·알바 총 동원

1인가구 소포장 선물 영향 물동량 작년비 25% 늘 듯

국민 1인당 연간 45개가 훌쩍 넘는 '택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택배업계의 명절 풍경이다. 11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10일부터 추석 특별 수송기간에 돌입했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이날부터 10월12일까지 약 5주간을 아예 특별수송 기간으로 잡았다. 한진은 10월5일까지,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달 21일까지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상상황실 또는 종합상황

실 설치·운영 ▲콜센터 상담원 추가 투입 ▲택배차량 추가 투입 ▲본사 직원 현장 투입 등을 통해 밀려오는 택배물량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선 특히 추석을 며칠 남겨놓은 오는 18일까지 택배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택배회사 한 관계자는 "택배물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명절 선물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추석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용량·소포장 선물세트가 증가하는 등 추석 선물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물량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연간 택배물량은 약 12억 상자였던 것이 2013년엔 15억 상자를 넘어섰고,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20억, 23억 상자를 훌쩍 넘겼다. 업계에선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만 12억2700만 상자를 기록한 것에 비춰볼 때 올해 전체적으로 25억 상자를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소포장 단위 선물 등까지 가세하면서 추석 명절 택배와의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화첨단소재, 한화큐셀코리아 흡수합병

태양광사업 지분구조 단순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첨단소재는 한화큐셀코리아를 흡수 합병한다고 11일 공식했다. 한화큐셀코리아는 "복잡한 태양광 사업의 지분 구조를 단순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합병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합병은 한화첨단소재가 한화큐셀코리아의 주주인 한화종합화학(50.15%), 한화(20.44%), 에이치솔루션(9.97%)에 합병 대가로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존속법인인 한화첨단소재, 소멸법인인 한화큐셀코리아이며 합병비율은 1대 0.5796339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이를 위해 한화첨단소재는 시설자금 633억원을 포함한 5028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며 모회사인 한화케미칼이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 전환(600만주)을 인수하기로 했다. 보통주 600만주는 주당 8만3796원에 새로 발행되며 합병은 다음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구조조정 실패, 前 정권 탓"

이동걸 産銀회장 취임 1년

<1> 사라진 존재감

STX- 금타 등 부실기업
혈세투입, 급한 불만 진화
8조 투입 GM '다시 논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금호타이어와 한국GM, STX조선. 일단 법정관리나 한국시장 철수 같은 급한 불은 꺼지지 않지만 아직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은 한국GM은 정상화에 합의를 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신설법인을 추진 중이지만 산업은행은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한국GM의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설립은 관련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이를 반대나 찬성을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GM과의) 기본계약서 정신에 위배되고 잠재적 위험도 있다고 생각해 관련 주주총회 개최를 금치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은과 GM 본사가 7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던 한국GM이 6달 만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회장은 "신설법인 문제는 지난 7월 말, 8월 초쯤 이사회에

서 얘기가 나오면서 알게됐다"며 "산은 임명 이사가 법인 신설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대효과 등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산은도 한국GM에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전 정권과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돌렸다. 이 회장은 "기업의 부실화에 대해 산은의 책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전통적 제조업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제대로 구조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산은은 부실 대기업을 강박에 의해 떠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산은이 구조조정 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구조조정 기업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느낀 것은 어떤 기업도 산업은행 밑에 들어오면 나가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라며 "그런 기업이 독립심과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은 입장에서는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대우건설과 KDB생명도 묶은 과제다. 그는 대우건설 재매각과 관련해 "올해 초에 국내의 대부분 기업을 다 접촉하고 매각을 추진했음에도 실패한 것이라 조금 더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며 "상당 기간을 갖고 대우건설을 재정비해 값을 올려 팔겠다"고 설명했다. 남북 경제협력의 가시화되면 대우건설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 전망이다. 이 회장은 "남북 경제협력의 가시화되면 대우건설의 유용성이 굉장히 커진다"며 "주당 5000원이 아닌 1만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산상미 기자 smahn1@

'역대급'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1주택·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 관심

문재인정부의 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이번주 중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1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이번주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한 전망이 다양했으나 이날 오전 여당 일부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회동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번 주 발표'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초강도 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도 세금·금융·공급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다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종합대책엔 ▲1주택자 규제 강화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크게 세 가지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최근 '뽕뽕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가 높아진 만큼 1주

택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 보유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현재 0.5%)이 인상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9개월간 장려해온 임대사업자 등록도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심리를 자극해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혜택 축소가 고려되고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그린벨트 해제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정부는 택지확보를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채신화 기자 csh9101@